



‘엄마’ 김미진, 사격 여자더블트랩 세계신



한국사격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김미진(가운데)이 25일 화성 경기종합사격장에서 벌어진 2014인천아시안게임 여자 더블트랩 개인전에서 110점을 쏜 세계신기록을 작성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미진이 아들 손연호 군과 함께 시상대에 올라 손을 흔들고 있다.

화성 | AP뉴시스

■ 인천AG 25일 경기종함



드디어 금메달이다. 지유진(화천군청)이 25일 충주 탄금호 조정경기장에서 펼쳐진 2014인천아시안게임 조정 여자 경량급 싱글스컬 결승에서 금메달을 따낸 뒤 태극기를 펼쳐두고 기뻐하고 있다.

충주 | 뉴시스

지유진, 女경량급 싱글스컬 금
여자혼계영 역대 첫 AG은메달

지유진(화천군청)이 25일 충주 탄금호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2014인천아시안게임 조정 여자 경량급 싱글스컬 결승에서 8분01초00으로 리카만(홍콩·8분06초60)을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며 4년 전 광주우대회 은메달의 아쉬움을 털어냈다. 여자 싱글스컬 김예지(포항시청)에 이은 이번 대회 한국조정의 2번째 금메달. 남자 싱글스컬 김동용(진주시청)과 여자 쿼드러플스컬대표팀은 은메달을 보았다.

김미진(제천시청)은 화성 경기종합사격장에서 벌어진 사격 여자 더블트랩 개인전에서 110점을 쏜 세계신기록을 작성하며 우승했다. 김미진은 이보나(한화켄러리아), 손혜경(제천시청)과 함께 단체전에서도 314점으로 중국(315점)에 이어 은메달을 따냈다. 남자 25m 스탠더드 권총 개인전(김종홍)과 단체전, 남자 50m 소총복사 단체전에서도 은메달이 더해졌다.

이다린(서울제중)-양지원(소사고)-안세현(울산시청)-고미소(인천체고)로 구성된 여자수영대표팀은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열린 혼계영 400m에서 4분04초82의 한국신기록으로 일본(4분00초94)에 이어 2위로 끝냈다. 한국수영이 여자혼계영에서 아시안게임 은메달을 딴 것은 역대 최초다.

계양아시아드양궁장에서 펼쳐진 컴파운드 단체전에선 남녀대표팀 모두 결승행을 확정해 은메달을 확보했다. 민리홍-최윤희(이상 현대제철)-양용호(증원대)의 남자대표팀은 필리핀과의 준결승에서 228-227로 이겼고, 최보민(청주시청)-석지현(현대모비스)-김윤희(하이트진로)의 여자대표팀은 이란을 229-222로 따돌렸다. 남자는 인도, 여자는 대만과 금메달을 다툰다. 여자 개인전에 나선 최보민 석지현은 4강에 진출한 반면 남자 개인전에 출전한 민리홍 최윤희는 8강에서 탈락했다. 남녀 컴파운드 단체전과 개인전 금메달은 27일 결정된다.

배드민턴 남자복식 이용대(삼성전기)-유연성(상무), 김사랑-김기정(이상 삼성전기)은 나란히 8강에 진출했다. 여자배구대표팀은 한일전에서 3-0으로 승리했고, 남자핸드볼대표팀은 이란을 25-21로 따돌리고 본선 2승째를 챙겼다. 남자하키대표팀은 말레이시아에 2-1로 이겼다.

여자 역도 75kg급에 출전한 북한 김은주는 용상(164kg)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합계 292kg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북한은 역도에서만 금메달 4개를 획득했다.

인천 |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트위터 @kimdohoney

클릭! 인천

| 주말 주요경기 일정

야구·양궁·배드민턴 ‘슈퍼선데이’ 예감

‘마린보이’ 박태환(인천시청)은 마지막에 웃을 수 있을까. 박태환은 26일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열리는 수영 남자 자유형 1500m에 출전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역영을 펼친다. 결승 예정 시각은 오후 7시41분. 이에 앞선 오전 9시부터 육련국제사격장에서선 정미라(화성시청), 김설아(창원불림고), 유서영(한체대)이 나서는 사격 여자 50m 소총 3자세 본·결선이 열린다. ‘지메시’ 지소은(헬시)이 합류한 여자축구대표팀은 오후 8시 문학경기장에서 대만과 8강전을 치르며, 남자핸드볼대표팀은 오후 4시 선화핸드볼경기장에서 오만과 예선전을 펼친다. 불림 정다은(창원시청)-이나영(대전시청) 등 3개조는 여자 2인조에서 메달 사냥을 노린다.

27일에는 육상, 탁구, 레슬링이 시작된다. 4년 전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4개를 획득했던 한국육상은 인천에선 그 이상의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 남자 해머던지기 이윤철(대전광역시청)과 여자 포환던지기 이미영(영월군청)이 메달권에 근접해 있다. 레슬링에선 남자 자유형 75kg급 윤준식(삼성생명)과 70kg급 오만호(울산남구청)가 출전하고, 여자 자유형 48kg급 이유미(칠곡군청)와 63kg급 김경은(서울중구청)도 경기를 치른다. 탁구는 남녀단체전 예선에 돌입한다.

28일은 이번 대회에서 한국선수단에 가장 많은 금메달이 쏟아지는 ‘슈퍼 선데이’가 될 전망이다. 야구대표팀이 27일 준결승을 거쳐 아시안게임 2연패에 도전하고, 남녀양궁대표팀은 컴파운드에 이어 리커브 개인·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정조준한다. 배드민턴 남자복식 세계랭킹 1위 이용대(삼성전기)-유연성(상무)의 금메달 획득도 기대된다. 골프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총 4개의 금메달도 이날 주인을 가린다.

인천 | 김도현 기자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트위터 @hk7048

강심장 한국 사격, 멘탈서 중국 이겼다

한국사격 7개 금 모두 2위 최강 중국과 대결서 획득

단체전 금 4개는 1점차로 꺾고 따내
김병채 코치 “집중력과 응집력의 힘”
평소 때도 실전같은 긴장감 속 훈련

한국사격은 25일까지 7개의 금메달을 수확해 2014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세운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다. 종목별로 보면 펜싱에 이어 2번째로 금메달 개수가 많다. 아직 경기가 더 남아있어 추가로 금빛 총성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

●한·중 사격 대결은 다투고 골리앗의 싸움
한국사격은 특히 이번 대회에서 만리장성을 넘으며 선전을 거듭했다. 중국은 사격의 최강국이다. 홈에서 열린 2010광저우아시안게임에선 무려 21개의 금메달을 쓸어들었다. 이 정도 숫자임에도 당시 중국 언론은 “중국사격이 부진했다”고 질타할 정도

였다. 당시 한국은 1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며 중국의 독식을 저지했다.

한국과 중국의 사격 대결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불린다. 사격대표팀 윤덕하(60) 감독은 “중국사격의 등록선수수는 300만 명 이상이다. 반면 한국은 3000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양궁과 마찬가지로, 중국선수들은 자국 선발전들을 통과하는 것이 국제대회보다 더 어렵다고 말한다. 선수 규모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지원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전반적인 사격의 수준에서 중국이 한국보다 앞서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번 대회에서도 중국사격은 25일까지 18개의 금메달을 가져갔다.

●박빙 승부에 강한 한국…단체전 금 4개 모두 중국 1점차로 제치
그러나 한국사격은 살얼음판 승부에서 강하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사격이 금메달

을 획득한 7경기를 살펴보면, 2위는 모두 중국이었다. 특히 단체전 금메달 4개는 모두 중국을 1점차로 꺾고 따낸 것이었다. 남자 10m 공기권총 단체전(1744점 대 1743점), 여자 25m 권총 단체전(1748점 대 1747점), 여자 50m 소총 복사 단체전(1855.5점 대 1854.1점), 남자 25m 속사권총 단체전(1747점 대 1746점)에서 모두 명승부 끝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살얼음판 승부 강한 비결? 집중력과 단체전에서의 응집력

사격대표팀 김병채(55) 코치는 한국이 박빙승부에 강한 면모를 보인 이유를 아시안게임에 대한 집중력에서 찾았다. 그는 “아시안게임에선 선수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홈에서 열리는 경기라 더 집중력이 좋았던 것 같다. 홈에서의 기대와 응원 등이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선수들이 잘 이겨냈다. 반면 중국선수들은 자신들의 실력에 비해 메이저대회에서 약

한 감이 있다. 심리적 압박이 큰 것 같다”고 진단했다.

선수들은 단체전을 특히 부담스러워한다. 자신의 실수 때문에 동료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선수간의 사이가 돈독하고, 팀워크가 좋을수록 단체전에서 느끼는 심리적 압박이 크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다. 김 코치는 “월드컵 등의 국제대회가 개인적 경쟁의 성격이 강하다면, 아시안게임은 단체전도 중요하다. 한국사격선수들이 끈끈한 응집력을 발휘해 서로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도 단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낸 이유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격대표팀은 평소 훈련 과정에서도 실전의 결선 상황처럼 긴장감을 조성하고 방아쇠를 당기기도 한다. 목표 점수를 설정한 뒤 훈련에 들어가거나, 가벼운 내기를 거는 방식이다. 일부러 왓자끼절한 소음을 만들고 총을 쏘는 경우도 있다.

인천 |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 @setupman11

남자하키 ‘쌍둥이 형제’ 동반우승 노린다

‘쌍둥이 형제’가 함께 필드를 누비며 첫 우승에 도전한다.

남자하키대표팀의 강문규-강문권(26·김해시청)은 하키에서 널리 알려진 쌍둥이 형제다. 형인 강문규가 동생보다 2분 먼저 빛을 봤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나란히 하키를 시작한 두 형제는 곧장 두각을 나타냈다. 조선대 1학년 재학 중이던 2007년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았다. 2012런던올림픽에서 함께 올림픽 메달을 노렸으나 아쉽게 8위에 그쳤다. 그리고 두 형제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2014인천아시안게임에서 동반 우승을 그려보고 있다.

●갯벌인 태극마크
누구보다 서로를 위하고 조언을 해주는 파

듯한 형제였지만 인연은 번번이 엇갈렸다. 2008베이징올림픽에서 동생만 태극마크를 달았고, 2년 뒤 열린 2010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는 형만 태극마크를 달았다. 2006도하아시안게임과 2008베이징올림픽을 이끈이던 조성준 KBS 해설위원은 “당시 문권(동생)이는 젊고 어린 선수를 발굴하겠다는 취지에서 선발했다. 이 대회부터 수시교체가 생기면서 조커가 필요했고, 문권이는 스피드와 골 감각이 남달랐다”고 회상했다. 반면 강문규는 경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비진에서 아쉽게 태극마크를 달지 못했다.

형제는 좌절하지 않았다. 탈락한 쪽은 TV를 지켜보며 서로를 응원했다. 큰 대회에서 부담을 갖지는 않을가 가끔 메시지를 안부와

대표팀 8년차 강문규-문권, 함께 출전
“눈빛만 봐도 척척…마지막 각오로 땀 뺀”

격려를 전했다. 강문권은 “형과 늘 함께여서 든든하다. 말수는 별로 없지만 눈빛만으로도 나를 위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를 지켜보는 어머니는 항상 가슴을 졸였다. 함께 뿔뿔하던 종아리를 태지나 한 형제만을 응원하기는 배 아파 낯은 다른 아이가 신경 쓰였다. 형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

●베터랑이 된 이들의 마지막 도전

둘은 어느덧 대표 8년차가 됐다. 국제경기를 소화한 횟수만으로도 100회를 훌쩍 뛰어넘는다. 하지만 동아시아대회와 아시아선수권대회(이상 2013년)를 제외하곤 메이저대회에서 정상에 오를 적은 없다. 둘은 이번 아시안게임에



강문규

강문권

서 어머니에게 금메달을 선물하겠다는 각오로 뜨겁다. 특히 준결승전과 결승에서 맞붙을 것으로 유력한 파키스탄, 인도에게 빛을 갈아야 한다. 형 문규가 출전했던 2010광저우아시안게임 4강과 동메달 결정전에서 거꾸 이틀 국가에게 패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둘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아시안게임에서 베터랑의 힘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고 한국하키의 저력을 확인하겠다는 각오로 버티고 있다.

인천 | 박성준 기자
spark47@donga.com 트위터 @sangjun47

우승 노리는 남자력비, 첫 승 노리는 여자력비

한국남녀력비가 2014인천아시안게임에서 선전을 다잡고 있다. 7인제로 진행될 아시안게임 남녀력비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인천 남동아시아드력비경기장에서 3일간 열전을 펼친다.

대개력비는 15명이 한 팀을 이뤄 전·후반 40분씩, 총 80분 경기를 치르지만, 이는 체력소모가 극심하다. 그래서 올림픽 등 대부분의 국제종합대회와 마찬가지로 아시안게임에서

도 7인제를 시행한다. 전·후반 7분씩을 소화하고, 하프타임 2분을 준다.

정형석(한국전력) 감독이 이끄는 남자대표팀(12명)은 9일부터 경북 문경의 국군체육부대(상무)에서, 용환평(대한력비협회) 감독의 여자대표팀(12명)은 경북 김천에서 혹독한 강화 훈련을 해왔다. 여자대표팀은 24일 구월동 아시아드선수촌에 입촌했고, 남자대표팀은 26일 훈련을 마친 뒤 인천으로 이동한다. 남녀대표팀

은 27일 오후 남동아시아드력비경기장에서 합동훈련을 하며 마지막 결의를 다진다.

물론 남녀대표팀이 처한 상황은 각기 다르다. 우승 후보로 꼽히는 남자와 달리 여자는 1승 이상을 노리는 것이 현실적 목표다. 남자대표팀은 2002년 부산대회에서 금메달을 따 뒤 2006년 도하대회 은메달, 2010년 광저우대회 동메달 등 꾸준한 성과를 냈다. 15인제는 아시아에서도 아직 변방에 가깝지만, 7인제는 나름 강호로 자리 잡고 있다. 8월과 이달 초 홍콩-말레이시아를 오가며 치른 2014아시아세븐시리즈대회에서도 준우승(홍콩대회),

3위(말레이시아대회)를 하며 희망을 알렸다. 한국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일본과 홍콩이다. 일본은 통가와 피지 등 남태평양 럭비강국 출신의 외국인선수 3명을 귀화시킬 정도로 금메달 열망이 강하다. 7인제 럭비의 발상지이기도 한 홍콩은 선수 다수가 럭비의 인기가 높은 영국에서 유학해 만만치 않다.

실업팀이 전무한 가운데 선수 수급조차 쉽지 않은 환경에서 대학생들이 주축이 돼 꾸려진 여자대표팀은 전패로 마감한 광저우대회의 아쉬움을 딛고 안방에서 기적을 노린다.

인천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